

지역 소식통

김제시 학교급식지원 협약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주), 지평산친환경급식지원 협동조합(대표 유재창)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원활한 추진과 수급을 위해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운영주체로 지평산친환경급식지원협동조합을 지정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우수한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이 고품질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산면 동봉마을 생명사랑 녹색마을 협약

완주군 고산면 동봉마을(이장 유관식)이 농약 안전사용을 다짐했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고산면 동봉마을 경로회관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생명사랑 녹색마을' 협약과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농약안전보관함의 안전 사용과 다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완주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 고위험군 다수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 상담, 마을별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명사랑보급사 회공헌재단이 지원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주관하는 농약 안전보관함보급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약안전보관함 300개를 지원받아 10개 마을에 보급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코로나 지역확산, 안돼”

완주군, 공공다중시설 폐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시행 관내 경로당·실내 공공체육시설 등 운영 잠정 중단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완주군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공공다중시설 폐쇄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1일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성일)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산자연휴양림과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각 읍면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장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도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잠정 휴관에 들어가며, 공공도서관에서는 비대면 도서예약대출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난 7월 27일부터 운영 재개에 들어갔던 관내 경로당 490개소도 22일부터 운영중단에 들어간다. 또한 청사 내에 위치한 어울림카페도 22일부터 운영중단한다. 종교시설의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됐다. 오는 23일 직원 일제출장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전수점검하고, 정기예매, 미사, 법회 이외에 소모임과 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음식점, PC방 등 13개 업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계속 주변의 산장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강화한다.

라태일 완주군 부군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도권에 비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디에서도 안전지대는 없고,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과 행정청사, 피서지 숙박시설 등 4078개소 시설에 대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봉사 손길 이어져



김제시 성덕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서석욱)는 지난 20일 회원 20여명과 함께 주거환경이 취약한 남포마을 독거노인세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 성덕면 새마을지도자회, 대청소·장판교체·도배시공

김제시 성덕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서석욱)는 지난 20일 회원 20여명과 함께 주거환경이 취약한 남포마을 독거노인세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 세대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더욱이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피고 장판이 들뜨는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집안 대청소, 장판교체, 도배시공 등을 각각 분담하였고, 이들의 노력으로 노후화

된 집이 새롭게 단장됐다.

남포마을 어르신은 “그동안 노후주택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의욕을 잃었는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준 성덕면 새마을지도자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단체, 기관 등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공공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첫 돌 맞은 수상한공동체협동조합 음료 나눔

완주군 이서면 수상한공동체협동조합이 설립 1주년을 맞아 음료를 나눔했다.

지난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서면 수상한공동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미디어카페에서 협동조합 설립 1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에게 음료를 기부하고 합인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손님들의 기부 쿠폰을 이용해 폭염과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완주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이서파출소에 기부한 음료 70여잔을 전달했다.

지난 김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 2회에 걸쳐

100여잔의 음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연주 협동조합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협업하고 발전하며 누구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미디어카페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동조합이 더욱 성장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한공동체 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동체로 시작해 2019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는 지역주민들의 회의장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난 18일과 19일 완주 이서면 수상한공동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미디어카페에서 협동조합 설립 1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에게 음료를 기부했다.

김제 청하면 복지기동대·사회보장협의체 벽지 교체 등

김제시 청하면 복지기동대(대장 유월영)와 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남철) 위원 등 15명은 지난 2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집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원대상자는 치매 초기 79세 노령으로 스스로 주변 정리가 힘들어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집안 가득 쌓여 발 디딜 틈이 없고, 곰팡이로 인해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청소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소년속 여성가족과장은 “김제시 지역아동을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통크게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아동들이 무사히 코로나 19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집과 센터 등을 우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고, 낡은 전등과 벽지까지 교체해 주니 새집 같다.”라며 기쁨과 고마움을 표했다.

유월영 복지기동대장은 “우리의 작은 재능기부가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쁨과 행복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조희임 청하면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면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언택트형 사랑나눔 릴레이 1호 ‘소리소’

김제시 지역 복지시설 아동에 마스크·손세정제 기부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한 화장품 및 마스크 생산 업체인 (주)소리소(대표 최환자)는 지난 21일 김제시청을 방문해 마스크 2만 2700장과 손세정제 2000개를 김제시 관내의 아동복지 시설 아동들에게 지정 기탁했다.

원래 화장품 전문업체였던 소리소는 코로나19여파에 따른 매출감소와 경영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업종을 추가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생산을 결정하게 된 이후, 생산량을 매월 갱신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다짐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번 마스크와 손 세정제 기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및 비대면 생활패턴의 변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나눔릴레이사업’ 추진 사업 1호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됐다.

이번 릴레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육하기 좋은 행정시스템으로 인공유입과 출산을 증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나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환자 (주)소리소 대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마스크 한 장과 손세정제를 통해 김제시 지역의 아동들이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소년속 여성가족과장은 “김제시 지역아동을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통크게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아동들이 무사히 코로나 19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집과 센터 등을 우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